

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(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)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.

이쿠노 광산촌은 이치카와강을 따라 약 7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. 예전에는 광산에서 마을로 강을 따라 철도가 운행되었지만, 오늘날에는 옛 선로의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. 히메미야 다리 위에서는 남겨진 선로 외에도 마을과 강의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이쿠노의 중심부에는 1874년에 세워진 제련 공장이 있으며, 현재도 주석 제련 공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. 이 마을은 지금도 일본에서 유일한 주석 제련과 희소금속 재활용 등 광공업이 이뤄지고 있으며,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세부터 근현대까지의 광공업 기술사 및 광산 도시사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광공업 도시 경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

‘구치가나야(口銀谷)’라고 불리는 마을 중심부에는 다양한 시대에 지어진 저택과 건물이 있으며, 그중에는 에도시대(1603-1867년)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. ‘이즈쓰야’로 알려진 에도시대에 이쿠노 광산의 일부를 경영했던 깃카와 가문의 저택 중 하나입니다. 깃카와 저택은 1999년에 시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저택은 1999년에 기부되었으며 마을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. 시무라 다카시 기념관에는 메이지 정부가 직원들을 위해 지은 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이것들은 메이지(1868-1912년), 다이쇼(1913-1926년), 쇼와(1926-1989년)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, 당시의 가구와 가전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